

근로빈곤가구의 소비패턴에 대한 탐색적 고찰

반 정 호*

I. 머리말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 최근까지 한국사회에서는 빈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지속적으로 높아져 왔다. 특히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빈곤율의 증가와 좀처럼 완화되지 않는 소득불평등 현상은 빈곤에 대한 관심을 더욱 확대시켰다고 볼 수 있다. 빈곤문제에 대한 관심과 함께 빈곤관련 연구들의 성과도 많은 진전을 이루었다고 판단되며, 빈곤에 대한 정의와 범위에서부터 현황과 원인, 빈곤의 동학(poverty dynamics)에 대한 분석 등 다양한 주제들이 연구에 등장하고 있다(정진호 외, 2005). 최근 논의에서는 경기불황과 노동시장의 구조변화를 겪으면서 발생한 근로빈곤층의 규모와 특성을 이해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기존의 빈곤관련 연구들을 살펴보면 대체로 가구의 소득에 관심을 두는 경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빈곤선을 설정하는 경우로부터 빈곤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구체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차원에 이르기까지 가구의 소득이라는 변인은 매우 중요한 요소로 받아들여진다. 물론 소득이란 개인과 가족의 생계유지를 위해 중요한 요소임에는 어떤 이견이 있을 수 없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조금 관심을 달리하여 빈곤가구와 소비와의 관계를 탐색적으로 고찰해 보고자 하였다.

소득뿐만 아니라 소비 역시 한 가구의 경제적 복지와 삶의 질을 가늠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는데, 근로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계유지를 위한 필요소득을 충분히 획득하지 못하는 근로빈곤계층의 경우 더욱 그러하다. 일반적으로 한 가구의 소비행위는 가족 내의 경제적 변화에 매우 민감하게 작용하는데, 경제적 상황변화로 인해 재화에 대한 상대적 필요나 욕구에 변동이 있을 때 소득(예산) 밖의 자원으로 충당하거나 소득범위 내에서 조정하는 과정을 거친다. 여기에서 소득(예산) 밖의 자원이라 함은 저축

* 한국노동연구원 데이터센터 동향분석팀 연구원(jhban@kli.re.kr).

이나 자산 등의 가처분소득의 확대를 통한 소비욕구를 그대로 유지하는 방식과 노동시장에 진입하여 근로소득을 확대하는 방식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근로빈곤가구는 이미 근로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로 가족의 특수한 상황에 따른 소비지출의 증가가 불가피할 경우, 근로소득을 통해 예산을 증가시키는 것은 매우 어렵게 된다. 또 하나의 방법으로 소득의 범위 내에서 비교적 조정이 가능한 항목의 지출을 감소시켜 고정된 소득의 범위 내에서 새로운 욕구를 충족해 나가는 방식이다. 그러나 소비항목들 중에서 어떤 항목들은 조정가능한 것들이 있지만 필수재 성격의 소비항목의 조정은 쉽지 않다. 특히 빈곤가구의 경우 보건의료비, 주거비, 식비 등의 항목들은 다른 항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조정이 용이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Junk, Jones, & Kessel, 1988; Magrabi & Chung, 1991, 정영숙, 2000에서 재인용). 예컨대 근로빈곤가구가 필요와 욕구에 따른 조정이 어려운 보건의료비, 주거비, 식비 등의 비중이 비빈곤가구에 비해 높은 소비패턴을 유지한다면 이들 가구가 경험하는 소비행위에 대한 효용이나 삶의 질, 경제적 복지의 수준은 매우 저급해질 수밖에 없다. 근로소득의 확대를 통해 변화하는 소비욕구에 대응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은 근로빈곤가구의 소비에 대한 효용이나 경제적 복지수준은 결국 이들 가구의 소비패턴에 의해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하겠다. 이에 본고에서는 근로빈곤가구의 소비패턴이 어떤 유형을 보이고 있는지, 소비패턴이 빈곤지위에 따라 차별성이 나타나고 있는지를 탐색적으로 규명해 보고자 하였다.

II. 실증분석

1. 분석자료

본고에서는 실증분석을 위해 한국노동연구원에서 실시한 「한국노동패널조사(KLIPS)」 7차 자료(2004년 조사) 가구자료와 개인자료를 이용하였다. KLIPS는 제주도를 제외한 비농촌지역에 거주하는 가구와 가구원을 대상으로 1년 1회에 걸쳐 조사대상자들의 경제활동 및 노동시장 이동, 소득 및 소비활동, 교육 및 직업훈련, 사회생활 등에 관해 추적조사하는 종단적인 조사이다. KLIPS는 개인의 경제활동자료와 소득자료를 포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가구의 일반적 특성 및 소득과 소비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근로빈곤계층의 규모를 파악하는데 적당할 뿐만 아니라 이들 계층의 소비에 관한 연구에 적합한 자료라 판단된다. 구체적인 분석을 위해 본고에서는 KLIPS 7차 가구자료에 가구주라고 응답한 개인자료를 결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가구주 개

인자료만을 결합한 이유는, 가구주는 한 가구를 대표할 수 있는 주체로서 가구에 대한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2. 빈곤선의 설정과 근로빈곤층의 규모

본고에서는 근로빈곤계층의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사용한 빈곤선(poverty line)은 표본의 중위소득의 50% 미만으로서 OECD 기준의 상대적 빈곤선 측정방식을 활용하였다. 기존 빈곤관련 연구에서 빈곤선 설정을 위해 소득과 소비변수 중 어떤 변수를 선택할 것인지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존재해 왔으며, 소득변수 중에서도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경상소득(근로소득+부동산소득+이전소득)이나 총소득(경상소득+기타소득)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본고에서는 빈곤선 설정을 위해 경상소득 변수를 이용하였음을 밝힌다. 또한 근로빈곤연구에서는 빈곤선에 대한 정의뿐만 아니라 근로활동에 대한 정의 역시 중요하다. 근로빈곤계층을 유형화하는데 있어서 다양한 정의방식이 존재한다. 근로활동을 취업상태별로 유형화하는 방식이 가장 일반적이며, 최근에는 실질적인 근로시간이나 인구학적 특성, 근로능력유무에 따른 유형화 등 다양한 정의방식들이 나오고 있다. 여기에서는 가구주의 취업상태에 따라 근로빈곤가구와 비빈곤가구를 유형화하였다.¹⁾

<표 1>은 KLIPS 7차 자료에 나타나는 근로빈곤가구의 소득과 규모에 관한 지표들을 보여주고 있다. KLIPS 가구자료에서 조사하고 있는 4,762가구 중에서 가구주 개인자료를 결합하여 4,615가구 자료를 얻을 수 있었으며, 이들 중 약 74%(3,400가구)는 근로를 하고 있는 가구이고 26%에 해당하는 1,215가구는 근로를 하지 않는 가구로 나타났다. 근로가구의 월평균 경상소득은 262만원으로 나타났으며 근로를 하지 않는 가구는 133만원 정도로 근로여부에 따른 월평균 경상소득은 약 129만원 정도의 격차가 있는 것으로

<표 1> 근로빈곤계층의 규모

(단위 : 명, %, 만원)

	근로 및 빈곤여부	빈 도	월평균 경상소득
총조사가구(4,762가구)	-	-	-
가구+가구주 개인(4,615가구)	근로가구	3,400(73.7)	262.3
	비근로가구	1,215(26.3)	132.9
근로가구(3,400가구)	빈곤가구	485(14.3)	51.3
	비빈곤가구	2,915(85.7)	297.4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조사」, 2004 원자료.

1) 근로빈곤계층의 유형화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노대명·최승아(2004)의 연구를 참고하기 바란다.

분석되었다. 근로활동을 하고 있는 3,400가구 중에서 중위소득의 50% 미만(월평균 131만원 미만)인 근로빈곤가구는 약 14.3%로 나타났으며, 빈곤하지 않은 가구는 2,915가구(85.7%)로 분석되고 있다. 근로빈곤가구의 월평균 경상소득은 51만원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비빈곤가구의 경상소득(297만원)에 약 17%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3. 분석방법

근로빈곤가구의 소비패턴의 내재적 구조를 파악하기 위해 본고에서는 소비의 내재적 구조차원과 유형을 요인분석(factor analysis)과 군집분석(cluster analysis)으로 나누어 실시하였다. 요인분석은 소비항목별 지출비중을 주요 변수로 사용하여 소비비목에서 나타나는 요인구조(factor structure)를 파악하였으며, 다음으로 군집분석은 요인분석에서 도출된 요인점수(factor score)를 변수로 투입하여 연구대상 가구의 소비의 내재적 구조유형을 파악하였다.

III. 분석결과

<표 2>는 표본가구와 가구주의 특성을 제시해 주고 있다. KLIPS 7차 가구자료에서 가구주가 근로활동을 하고 있는 3,400개 표본가구 중 남성가구주의 비중은 88.9%로 여성가구주(11.1%)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다. 특징적인 것은 근로빈곤가구 중 여성가구주 가구의 33.3%로 비빈곤 가구의 여성가구주 비중(7.4%)에 비해 25.8%포인트 높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어 최근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여성의 빈곤심화 현상을 짐작할 수 있게 한다. 표본가구의 평균연령은 45.5세이며 근로빈곤가구 가구주의 평균연령이 51.4세로 비빈곤 가구에 비해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표본가구의 평균 가구원수는 3.4명으로 분석되고 있다.

가구주의 학력의 경우 전반적으로 근로빈곤가구 가구주의 교육수준이 낮은 것으로 분석되는데, 근로빈곤가구 가구주의 83% 가량은 고졸 이하의 낮은 학력수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문대학과 대학 이상의 학력을 소유한 가구주의 비중은 약 17%로 분석되는데, 이는 비빈곤가구 가구주의 37%에 비해 20%포인트 정도 낮은 수치로 근로빈곤가구 가구주의 저학력 현상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가구주의 결혼상태를 살펴보면, 비빈곤가구 가구주의 87% 가량이 기혼상태인데 비해 근로빈곤가구 가구주는 54% 정도만이 기혼상태로 결혼상태에 있어서도 근로빈곤가구와 비빈곤가구의 뚜렷한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일자리 형태를 살펴보면, 근로빈곤가구의 약 40% 정도는 자영업(고용주) 및 무급가족종사자 등의 비임금근로자인 것으로 나타났고, 비빈곤가구의 경우는 35% 정도가 비임금근로 일자리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근로빈곤 지위에 따라 0세 이상 고등학생 이하의 보육 및 교육에 대한 보호(care)를 필요로 하는 요보호가족 여부를 살펴보면, 근로빈곤가구의 경우 요보호가족이 있다고 응답한 가구는 34%로 비빈곤가구(약 57%)에 비해 23%포인트 정도 낮은 비중을 보인다.

<표 2> 표본가구의 주요 특성

(단위: 명, %)

		전 체	근로빈곤	비빈곤
성	남성가구주	3,024(88.9)	324(66.8)	2,700(92.6)
	여성가구주	376(11.1)	161(33.2)	215(7.4)
연령		45.5(11.1)	51.4(15.1)	44.6(10.3)
가구원수		3.4(1.2)	2.4(1.2)	3.6(1.2)
학력	고졸	2,226(65.5)	402(82.9)	1,824(62.6)
	전문대졸	286(8.4)	27(5.6)	259(8.9)
	대학 이상	888(26.1)	56(11.5)	832(28.5)
배우자 유무	유배우자	622(18.3)	260(53.6)	2,518(86.4)
	무배우자	2,778(81.7)	225(46.4)	397(13.6)
일자리 형태	임금근로자	2,196(64.6)	290(59.8)	1,906(65.4)
	비임금근로자	1,204(35.4)	195(40.2)	1,009(34.6)
요보호가족 유무	유	1,762(51.8)	116(23.9)	1,646(56.6)
	무	1,638(48.2)	369(76.1)	1,269(43.5)

주: 연령과 가구원수의 ()안은 표준편차를 나타냄.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조사」, 2004 원자료.

<표 3>은 표본가구의 소비항목별 소비비중을 빈곤지위별로 분석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전체 표본가구의 소비비중을 살펴보면, 전체 소비의 약 22%는 식비가 차지하고 있으며, 약 12%는 용돈으로 주거비와 차량유지비로 9% 후반대의 소비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근로빈곤가구의 경우 전체 소비에서 약 27.3%가 식비로 지출되고 있으며 주거비로 약 15%, 용돈으로 10% 가량을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빈곤가구의 경우는 식비로 21% 정도가 지출되고 있으며 용돈으로 12.1%, 차량유지비로 10.5% 지출되고 있어 근로빈곤가구와 상이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각 소비항목별 평균비중이 빈곤지위에 따라 통계적인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문화비, 통신비, 현금 및 각종 기부금을 제외한 나머지 13개 소비항목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특징적인 것은 식비와 주거비, 의료비, 대중교통비 등 가구의 필수재 성격의 소비항목에서 근로빈곤가구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는

데 비해 비빈곤가구는 사교육비, 차량유지비, 용돈, 피복비 등에서 근로빈곤가구에 비해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식비의 경우는 근로빈곤가구가 비빈곤가구에 비해 약 6.8% 포인트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주거비의 경우도 근로빈곤가구가 비빈곤가구에 비해 5.8%포인트 높게 나타나고 있다. 반면 공교육비와 사교육비의 경우는 비빈곤가구가 근로빈곤가구에 비해 각각 1.0%와 5.7%포인트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결국 근로빈곤계층은 전반적으로 식비 및 주거비와 같은 가구내 필수재 소비가 지배적인 소비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비해 비빈곤가구는 자녀의 교육이나 자가교통 및 사회보험료 지불 등의 소비가 지배적인 것으로 보인다.

<표 3> 근로빈곤계층의 소비항목별 비중

(단위 : %)

	전 체	근로빈곤	비빈곤	t-values
식 비	22.0	27.3	20.9	14.3***
외식비	3.8	2.5	4.0	-7.2***
공교육비	4.6	3.8	4.8	-2.1*
사교육비	7.5	2.8	8.5	-12.4***
차량유지비	9.7	6.4	10.5	-10.2***
주거비	9.8	14.6	8.8	18.3***
경조사비	3.7	4.1	3.6	2.9**
보건의료비	3.0	5.3	2.5	11.1***
문화비	2.0	1.9	2.0	-0.4
내구재	1.1	0.5	1.2	-5.4***
통신비	7.7	7.7	7.7	-0.1
용 돈	11.8	10.3	12.1	-4.3***
피복비	3.1	2.8	3.2	-2.5**
헌금 및 각종 기부금	1.4	1.3	1.4	-0.5
국민연금 및 의료보험료	5.8	4.4	6.1	-8.0***
대중교통비	3.0	4.5	2.7	11.8***

주 : *p<0.05, **p<0.01, ***p<0.001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조사」, 2004 원자료.

<표 4>는 표본가구의 소비패턴의 내재적 요인구조를 탐색하기 위해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요인을 추출하는 방법으로는 탐색적 요인분석의 한 방법인 주성분분석(principle component analysis)을 실시하였으며, varimax 방식의 요인회전(직교회전)에 의해 분석되었다. varimax 방식은 각 요인의 적재치가 높은 변수의 수를 최소화하는 직교회전방식이다. <표 4>에 제시된 바와 같이 분석을 통해 추출된 요인은 아이겐 1.0 이상을 기준으로 산출된 요인구조를 나타내주고 있다. 분석결과 표본가구의 소비지출은 총 6가지의 요인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6요인 모형의 전체 설명변량은

52.1%로 나타났으며, 개별 요인별로는 7% 초반에서 10%대의 설명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음으로 요인부하량(factor loading)을 기초로 개별요인의 특성을 살펴 보면 요인 1은 차량유지비와 대중교통비 등의 자가 및 대중교통비와 관련된 요소에 의해 결정되며, 요인 2는 외식비, 문화비, 피복비 등의 여가활동(피복비 포함) 요소에 의해, 요인 3은 용돈, 식비, 주거비 등의 가구내 필수재 소비요소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분석된다. 요인 4는 경조사비, 사교육비, 보건의료비에 의해, 요인 5와 6은 각각 기부금과 통신비, 사회보험료와 내구재 소비요소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흔히 요인분석의 결과를 두고 요인부하량을 기초로 묶여진 요인들에 요인명칭을 부여하고 이에 대한 해석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요인명칭을 부여하고 해석하는 단계는 생략하기로 한다. 왜냐하면 분석결과에 나타난 것처럼 개별요인에 묶여진 소비비목들이 어떤 하나의 명칭을 부여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뒷받침할 만한 이론적 근거가 현재로서는 그다지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본고는 개별요인에서 나타나고 있는 전반적인 소비의 내재적인 구조에 대한 통찰을 제공받는 것으로 하고, 보다 정교한 소비비목들 간의 요인구조를 파악하는 것은 후속연구의 과제로 넘긴다.

<표 4> 소비의 내재적 구조차원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

	요인 1	요인 2	요인 3	요인 4	요인 5	요인 6	커뮤넬리티 (h ²)
차량유지비	-0.810	-0.011	-0.111	0.011	-0.201	0.118	0.723
대중교통비	0.766	-0.002	0.048	0.055	-0.133	0.111	0.564
외식비	-0.132	0.693	-0.029	-0.046	0.037	-0.088	0.509
문화비	0.064	0.617	0.211	0.034	0.101	-0.012	0.398
피복비	0.077	0.546	-0.129	-0.024	-0.149	0.036	0.344
용 돈	0.143	0.084	-0.682	0.186	-0.274	-0.050	0.604
식 비	0.293	-0.224	0.596	-0.004	-0.240	0.067	0.553
주거비	0.202	0.010	0.588	0.127	-0.093	-0.072	0.417
공교육비	0.256	-0.390	-0.491	-0.258	0.111	-0.164	0.564
경조사비	-0.073	0.049	-0.018	0.693	0.238	0.022	0.546
사교육비	-0.257	-0.107	0.104	-0.620	0.357	-0.210	0.645
보건의료비	0.016	-0.241	0.211	0.570	0.050	-0.290	0.514
헌금 및 각종 기부금	0.091	0.017	-0.069	0.123	0.703	0.224	0.573
통신비	0.048	0.022	0.029	-0.012	-0.504	0.460	0.469
국민연금 및 의료보험료	-0.131	0.063	0.001	-0.032	0.164	0.717	0.622
내구재	-0.187	0.271	-0.065	-0.027	0.031	-0.422	0.292
아이겐값	1.955	1.516	1.384	1.266	1.163	1.053	-
설명변량	10.1	9.5	9.4	8.3	7.5	7.2	-
누적변량	10.1	19.6	29.0	37.3	44.9	52.1	-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조사」, 2004 원자료.

<표 5>는 앞서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얻어진 표본가구의 소비항목별 요인점수를 토대로 소비패턴의 내재적 구조유형을 분석한 결과이다. 표본가구의 소비패턴의 내재적 구조유형을 파악하기 위해 군집분석을 실시한 결과, 5개의 소비패턴의 유형이 파악되었다. <표 5>에 제시되어 있는 것처럼 C1 군집은 식비를 제외하고 각종 기부금과 사회보험, 경조사비, 문화외식비 등의 사회적 지출비용이 전체 소비의 33.5%를 차지하는 사회적 소비 강조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으며, C2 군집은 공교육비와 사교육비의 비중이 전체 소비의 26.9%를 강조하는 교육비 강조유형으로 분류된다. C3 군집은 차량유지비와 통신비의 비중이 전체 소비의 25.6%를 차지하는 차량통신비 강조유형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C4 군집은 주거비와 보건의료비의 비중이 전체 소비의 27.4%를 차지하는 건강 및 필수재 강조유형으로 분류된다. 특히 C4 군집은 식비비중이 전체 소비의 30.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다른 군집에 비해 식비의 비중이 가장 높은 집단으로 분류되기도 한다. 마지막으로 C5 군집은 온건균형 소비유형으로 어느 특정 소비항목에 치우침이 없는 소비를 하고 있는 유형으로 분류된다. [그림 1]은 소비패턴의 각 유형별로 주요 소비항목별 소비비중의 분포를 나타내 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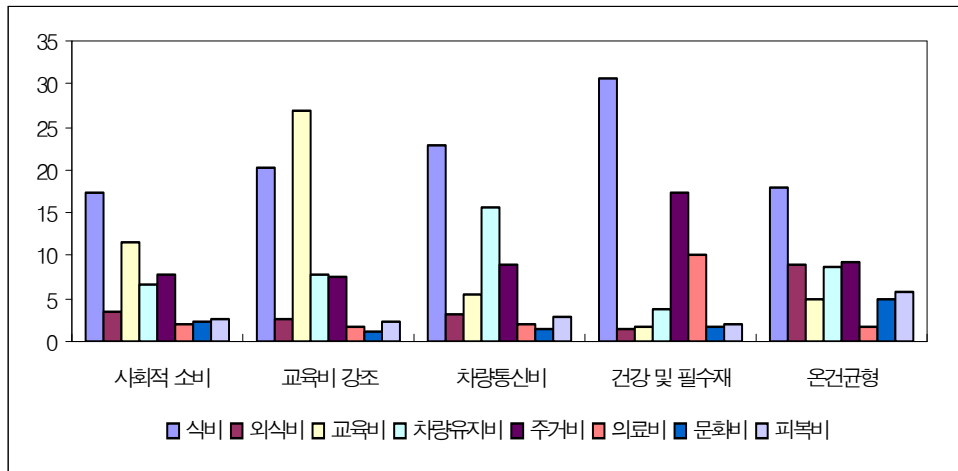
<표 5> 표본가구의 소비의 내재적 구조유형에 대한 군집분석 결과

(단위: %)

	C1	C2	C3	C4	C5
식비	17.4	20.2	22.8	30.6	17.9
외식비	3.5	2.7	3.2	1.5	9.0
공교육비	3.5	11.2	1.3	0.7	1.4
사교육비	8.0	15.7	4.1	1.0	3.4
차량유지비	6.7	7.7	15.7	3.7	8.7
주거비	7.8	7.6	9.0	17.3	9.4
경조사비	5.5	2.3	3.6	6.2	3.8
보건의료비	2.1	1.6	2.0	10.1	1.7
문화비	2.2	1.3	1.5	1.7	4.8
내구재	0.8	1.0	0.5	0.6	3.0
통신비	6.2	6.5	9.9	6.5	7.6
용돈	8.6	11.3	12.7	8.6	15.1
피복비	2.5	2.4	3.0	2.1	5.7
헌금 및 각종 기부금	14.4	0.7	0.6	0.8	0.7
국민연금 및 의료보험료	7.9	4.6	8.2	3.7	4.8
대중교통비	2.7	2.9	2.2	4.7	3.5
군집명	사회적 소비강조	교육비 소비강조	차량통신비 소비강조	필수재 소비강조	온건균형소비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조사」, 2004 원자료.

[그림 1] 소비패턴유형별 주요 소비분포



<표 6>은 군집분석의 결과를 통해 나타난 각 소비유형이 빈곤지위에 따라 어떤 분포를 나타내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근로빈곤가구의 경우 건강 및 필수재 강조 유형(45.2%)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으며, 차량통신비 강조 유형에 19.4%, 교육비 강조 유형에 17.5% 정도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 비빈곤가구는 교육비 강조 유형이 35.1%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차량통신비 강조 유형(33.3%), 온건균형소비 유형(16.7%) 순으로 분석된다. 결과적으로 근로빈곤가구의 절반가량은 건강 및 필수재 소비를 강조하는 소비패턴을 보이고 있는 반면, 비빈곤가구의 경우 교육비나 차량통신비 소비를 강조하는 등 근로빈곤가구와는 상이한 소비패턴을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6> 근로빈곤의 지위별 소비패턴

(단위 : %)

	근로빈곤	비빈곤
사회적 소비 강조	17(3.5)	156(5.4)
교육비 강조	85(17.5)	1,022(35.1)
차량통신비 강조	94(19.4)	970(33.3)
건강 및 필수재 강조	219(45.2)	281(9.6)
온건균형소비	70(12.6)	486(16.7)
Chi-square	425.620***	

주: ***p<0.001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조사」, 2005 원자료.

IV. 결론

한 가구의 소비행위는 독립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소비항목들 간의 상호영향을 미치는 가운데 형성되며, 이러한 상호작용은 균형을 지향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소비항목들 간의 균형 및 조화는 소비수준 그 자체만큼이나 가계의 경제적 복지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가계의 경제적 상황으로 인해 기존의 소비패턴이 이루고 있던 균형상태가 깨어져 불균형을 이룬다면 그것은 곧 그 가계를 운영하는 구성원들의 삶의 질을 낮추는 결과를 초래한다. 본고는 근로빈곤가구의 소비패턴의 유형 및 비빈곤가구와의 차별성을 탐색해 보았다. 서두에서 지적한 것처럼 근로빈곤가구는 가족의 변화하는 소비욕구에 대응할 수 있는 기제들이 비빈곤가구에 비해 불충분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맥락에서 근로빈곤가구의 소비패턴이 식비, 주거비, 보건의료비 등의 조정이 상대적으로 용이하지 않은 필수재 지배적인 패턴을 유지한다면 이들 가구의 경제적 복지는 낮아질 수밖에 없다. 분석결과, 근로빈곤가구의 45% 이상이 건강 및 필수재 지배적인 소비패턴 유형에 포함되는 것으로 나타나 이들 가구의 소비행위가 균형상태를 이루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근로빈곤가구의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과 경제적 복지수준을 낮추는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근로빈곤가구의 삶의 질과 경제적 복지수준을 향상시키려는 빈곤정책은 이들 계층의 소득을 향상시키려는 정책과 함께 이들의 소비행위에 있어서의 효용을 높이는 정책적인 노력이 병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분석결과에서도 나타나는 것처럼 근로빈곤가구는 식비, 주거비, 보건의료비의 지출비중이 비빈곤가구에 비해 절대적으로 높다. 이는 근로빈곤가구가 이러한 소비항목에 대한 욕구수준이 높다는 사실을 드러내주는 것이기도 하다. 따라서 향후 우리나라의 빈곤정책은 기존의 절대빈곤층을 대상으로 하는 주거지원과 의료보호 서비스 등의 정책프로그램을 근로빈곤계층에까지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와 같은 정책프로그램의 확대는 근로빈곤가구의 소비욕구에 대한 효용을 높일 수 있을 것이며 아울러 이들 가구의 균형잡힌 소비행위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KLI]**

<참고문헌>

노대명·최승아(2004), 『한국 근로빈곤층의 소득고용실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진호·황덕순·김재호·이병희·박찬임(2005), 『한국의 근로빈곤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정영순(2000), 「노인가계의 소비패턴과 복지정책적 함의」, 『소비자학연구』 11(1), 한국소비자학회, 59~74쪽.

Junk, V., Jones, J., & Kessel, E(1988), “Home Energy Costs and the Elderly,” *Journal of Housing and Society* 15(1), pp.15~29.

Magrabi, F. M. & Chung, Y. S(1991), “Impact of Health and Utility Expenditures on Consumption Patterns of the Elderly,” *Society of Human Ecology* 1, pp.1~25.